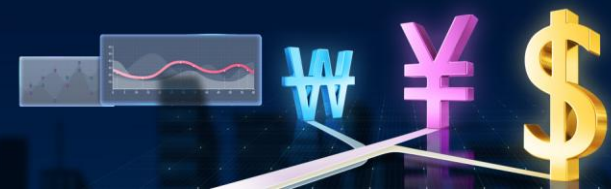
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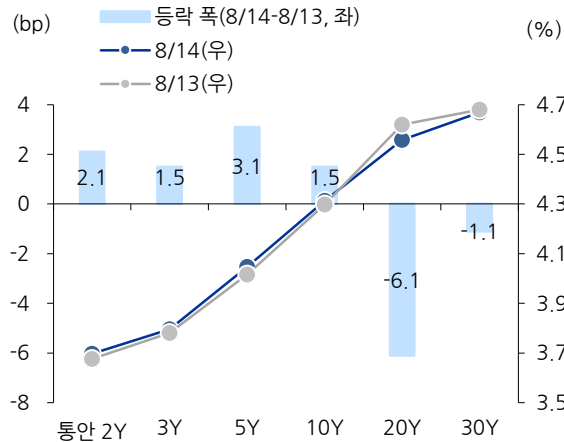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RA 차영후_02)368-6138_yhcha@eugenefn.com

Fixed Income

(단위: %,bp, 톱)

	8/17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796%	1.5	5.0
	한국 국고채 10년물	4.313%	1.5	10.5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bp)	51.7	51.7	46.2
해외 채권	3년 국채 선물(KTB)	103.24	-5.0	-15.0
	10년 국채 선물(LKTB)	105.67	4.0	-67.0
	미국채 2년물	4.177%	0.4	-6.6
	미국채 10년물	4.723%	2.9	1.5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bp)	54.6	52.1	46.5
	독일국채 10년물	3.236%	1.5	4.9
	호주국채 10년물	5.013%	3.5	4.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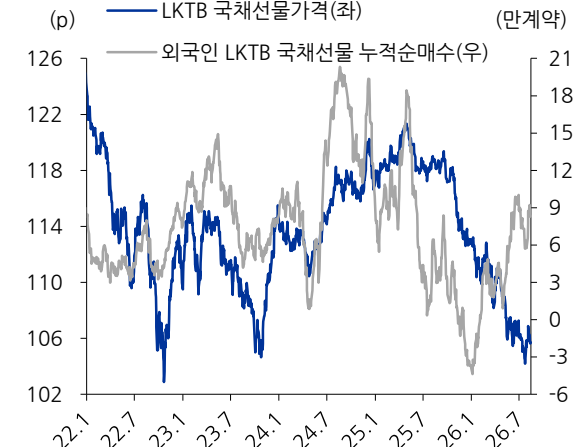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미국 채권시장 베어 스티프닝 마감.
- 오전 공개된 7월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0.6% 감소하며 시장 예상치 크게 하회. 6월 아마존 프라임 데이의 기저효과 발생이라는 해석이 있었음.
- 이로 인해 금리 인상이 미뤄지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했고, 유가도 상승하면서 장기금리 상승폭 확대.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전날 대이란 해상봉쇄를 무기한 유지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장기물 우려로 반영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. 연휴 전 포지션 정리 추정.
- 개장 초 전일 미국장 연동되며 하락 출발한 금리는 국고 50년물 입찰을 앞두고 투자심리 위축되며 하랴국 일부 반납.
- 오후 들어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기관들의 포지션 정리가 나타난 가운데, 8월 연속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어 단기물 투심에 부정적 영향.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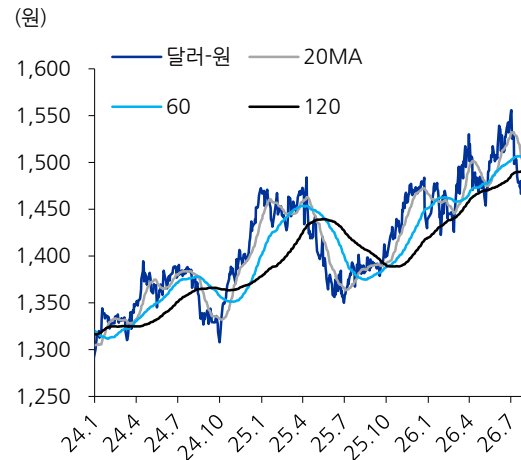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	8/17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413.00	-0.4%	-0.4%	-1.8%
	달러지수	99.58	-0.1%	-0.2%	1.3%
	달러/유로	1.16	0.1%	0.3%	-1.4%
	위안/달러(역외)	6.74	0.0%	-0.1%	-3.5%
	엔/달러	159.44	0.1%	0.1%	1.8%
	달러/파운드	1.35	0.1%	0.3%	0.6%
	헤알/달러	5.20	-0.5%	1.8%	-5.7%
상품	WTI 근월물(\$)	84.50	2.5%	2.9%	47.2%
	금 현물(\$)	4,416.69	0.9%	0.6%	2.3%
	비트코인(\$)	64,410	2.1%	0.5%	-26.7%
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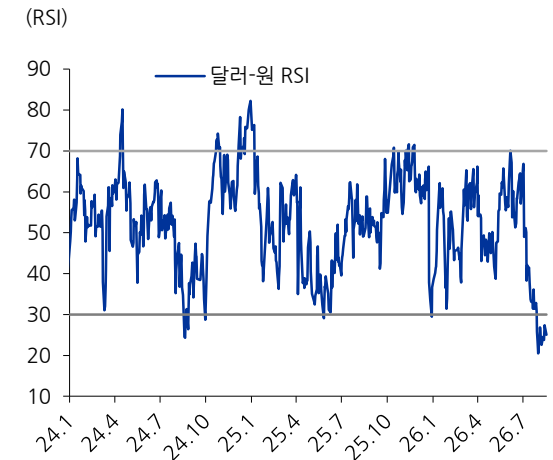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얇은 거래량 속 엔화 강세 연동되며 -5.30원 내린 1,413.00원 마감(야간 1,415.60원).
- 日 2분기 GDP가 전기비 연율 +1.1% 성장하며 예상(+2.0%)을 하회했으나, 시장의 9월 BoJ 금리 인상 기대는 70% 이상으로 유지됨. 이에 아시아장 엔화 상승하고 원화 또한 강세.
- 달러-원은 야간거래에서 주간 대비 +2.60원 오른 1,415.60원 마감. 미-이란 휴전 연장 확정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서 중동 불확실성 반영됨.
- 원달러 환율은 7월 -125원 하락 이후 하락 추세가 정체되어 있음. 당분간 중동 뉴스플로우와 BOJ 인상 기대 변화에 따라 등락할 전망.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인덱스는 연준 9월 인상 기대감 약화에 하락했으나 중동 리스크 반영되며 하락폭 축소(DXY -0.1%)
- 지난 주 美 7월 CPI, PPI에 이어 소매판매 예상 하회(-0.6%mom)로 연준이 9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이어지면서 달러인덱스는 장 초반 타 통화 대비 약세.
- 그러나 중동 불확실성 높아지며 달러는 하락폭 축소. 미-이란 MOU 연장 소식 부재했고, 트럼프 대통령은 MOU 연장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함.
- 단기적으로 달러는 중동 상황과 BOJ 금리 인상 속도 기대 변화에 따라 등락할 것으로 예상.